

국제금융위기 후 실직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 스트레스 대처양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

오 수 성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실직기간이 1년 미만의 실직자들 중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175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정신 건강과 그와 관련된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직자들의 정신건강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건강 측정표를 사용하여 요인별로 구분하였고 그와 관련된 변인으로 대처양식, 자존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여 이 변인들의 각 요인들과 정신건강의 요인들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실직자들은 사회적 역기능이나 신체화 증상에 비해 삶의 통제력의 상실 면에서 더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구체적 대처나 회피를 하기보다는 스스로 다독이거나 소망적 사고를 함으로써 대처하는 경향이 높았다.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도구적 지지보다는 정서적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직자의 정신건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직자의 정신건강에 있어 세부적인 취약점을 파악하여 구체적 심리적 개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주요어 : 정신건강, 스트레스 대처, 자존감, 사회적지지, 실직자

* 본 연구는 1998년 전남대학교 연구년 교수연구비로 이루어졌음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우리 사회는 전례없는 실업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정리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 와중인 1998년 중반에는 공식 실직자만도 160만 명에 이르러 사회적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이 끝났고 실업의 문제가 해결의 가닥이 잡힌 것처럼 낙관론이 나오기도 하면서 관심이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 들어 공식 실직자가 다시 10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저성장, 고실업의 일차리 없는 사회가 도래하고 기적이 일차적 안전망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심리적, 정서적 위안을 찾기 어려워진 실직자들, 특히 1년 이상의 장기 실직자들의 절망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유럽과는 다르게 아직도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실업은 개개인의 노동자에게 생존권의 근본적인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 구성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가족해체 및 전반적인 사회해체의 위험을 줄 수 있다. 실직은 개인의 경제력, 자아실현의 기회, 소속감과 같은 요인들을 박탈함으로써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과 고립감을 느끼게 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저해를 가져온다.

대규모의 실직을 경험한 서구의 많은 연구자들은 실직이 개인에게 우울, 불안, 적대감, 절망감, 대인관계 부적응과 같은 정서적 반응과 신체화된 반응 그리고 자존감에서의 변화가 생겨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실직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한다는 가정 하에 Warr(1984)는 실직이 당사자의 감정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여러 경험적인 연구들을 개관하였다. 그가 개관한 연구들은 매우 다양한 표집을 사용하여 실직과 부정적인 감정, 행복감, 생활만족도, 긴장 수준 등의 관계를 조사한 것이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실직자들은 취업자들에 비해 긴장감과 부정적 감정을 많이 경험하

며 행복감이나 생활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의 결과로 초래되는 대표적인 심리장애 중의 하나가 우울증이다. Finlay-Jones와 Eckhardt(1981)는 실직 이전에 우울증을 겪을 뚜렷한 원인이 없는 실직상태의 젊은이들 중 43%가 실직 후 우울증을 호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Feather와 Barber(1983)는 Beck의 우울척도를 사용하여 실직자의 우울증상의 정도를 평가했는데 실직집단의 우울점수가 취업집단의 우울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직은 우울감이나 절망감 수준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자살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Hawton과 Rose(1986)의 연구에서는 실직집단에서의 자살기도 비율이 취업집단에 비해 약 15.4배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Platt와 Kreitman(1990)이 영국의 에딘버러 지역에서 20년간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실직집단의 자살기도 비율이 직장을 가진 집단보다 약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실직자들은 모두가 취업자에 비해 정신건강이 나쁜 것은 아니다. 또한 실직의 부정적 영향이 모든 실직자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실직과 정신건강간에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중재변인들이 작용한다. 실직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도 개인의 성격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직과 관련된 중재변인들 중에서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이 스트레스 대처양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이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자극이나 반응 그 자체가 아니라 관계적인 현상으로 이해함으로써 특정사건이 스트레스를 주는 지는 개인이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모형에서는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

다.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그들은 상황적 요인, 개인적 요인, 인지적 평가, 대처, 적응적 결과로 구성된 스트레스 모형을 제안하였다. 객관적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스트레스 대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지적 평가는 어떤 상황에 당면할 때 그 상황의 의미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들은 대처를 한 개인의 자원을 넘어선 외적 또는 내적 요구를 다루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대처란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 또는 변경시키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수반되는 부정적 정서를 경감시키려는 개인적 노력을 말한다. Folkman 등(1986)은 대처를 문제 초점적 대처(problem-focused coping)와 정서 초점적 대처(emotion-focused coping)로 구분하였다. 문제 초점적 대처는 위협적이라고 평가된 상황을 통제 또는 변경하기 위해 환경이나 자신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된 행동들을 포함한다. 정서 초점적 대처는 증상 초점적 대처라고도 하는데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 유발된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둔 광범위한 사고와 행동을 포함한다.

실직에 대한 대처는 실직에 의해 부여된 과중한 요구를 관리하려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이다(Latack, Kinicki & Purssia, 1995). 실직이라는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은 재취업 혹은 실직 이후의 심리적 안녕감을 얻으려는 활동이다(Leana, Feldman & Tan, 1998). 실직 상황에서 문제 초점적 대처활동은 주로 재취업을 하기 위한 것인 반면, 정서 초점적 대처행동은 주로 실직과 관련된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스트레스 대처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는 변인이 사회적 지지이다. 사회적 지지는 연구자에 따라 개념적 및 조작적 정의와 평가방법이 다르다. Vinokur와 Ryn (1993)은 사회적 지지를 한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

록 주변의 의미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자원이라고 정의하였다. 가족, 친구 그리고 배우자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나은 건강상태를 보였다. 그들은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저해로 나누었다. 사회적 지지는 주위의 의미있는 타인들로부터 받는 격려, 이해, 정보, 실질적 도움 등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며, 사회적 저해는 의미있는 타인들로부터 받는 비난이나 혐오, 분노 등의 부정적 자원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에 완충효과를 가짐으로써 스트레스에 놓인 사람이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방어적 효과를 갖는다. 반면 사회적 저해는 정신건강을 악화시켰다.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으로 하여금 그가 돌봄을 받고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가치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의사소통 망에 소속해 있으며 호혜적인 관계에 있다고 믿도록 만들어 주는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보는 개인에게 존중감 지지, 정서적 지지 그리고 지역사회 지지를 제공해 준다. Schaefer, Coyne 및 Lazarus(1981)는 친밀감과 안심을 시켜주는 정서적 지지, 직접적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제적 지지, 개인의 문제 해결에 관한 조언과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정보적 지지 세 가지 차원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대처자원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실직이라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ohen & Wills, 1985). 실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알아본 연구결과들(Kessler, Turner & House, 1988 : 황성훈, 유의정, 한오수, 1998)은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받은 사람들에 비해 정신건강에서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Vinokur와 Caplan(1987)은 종단적 연구를 통해 실직자의 사회적 지지가 여러 차원에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구직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와 기대가 실직자들의 구직동기에도 영향을 끼치며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Shams(1993)는 실직 직후 가족들의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델이 제안되었다. 첫째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에게서만 사회적 지지가 안녕감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완충가설이다. 이 경우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경험이나 결과로부터 보호받거나 약화되는 반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상관없이 유익한 효과를 갖는다는 주효과 가설이다. 이 가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스트레스 조건하에서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 효과와 완충효과를 모두 가질 수 있다(Mallinkrodt & Bennett, 1992).

실직이 개인적 실패로 해석될 경우 실직자는 자존감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자존감은 자기 가치감이나 자기 수용감을 나타낸다. 자존감은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는데 자존감이 낮을수록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 등을 더 경험한다(Kessler, Turner & House, 1988; Rowley & Feather, 1987). Shamir(1986)는 자존감이 재취업상태와 심리적인 관계를 조절한다고 보고하였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 비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고용상태에 보다 민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 받았을 때 보다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ex, Cvetanovski, 그리고 Allen(1994)에 의하면 자존감이 실업상태와 불안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성 실직자의 경우 낮은 자존감을 보고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불안과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급증하

는 실직자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졌고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을 다루고 있다. 실직자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선, 실직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선정하느냐의 문제이다. 대부분 국내연구들에서 연구대상자는 구직을 하기 위해 인력은행이나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실업자, 재취업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연구대상자간의 동질성 문제가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로 제한하였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비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퇴직이며, 실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이며, 재취업의 노력을 하며 근로에 의한 소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구직이나 전직 등을 위해 고용안정센터나 인력은행을 방문하거나 재취업교육에 참여한 실직자들과는 구분된다.

실직은 개인의 정신/신체 건강을 악화시키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실직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심리적 개입을 위해서는 실직자들의 정신건강을 이루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실직자의 정신건강을 알아보기 위해 12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일반건강측정표(GHQ)를 사용한 연구들이 있다(Hepworth, 1980; Brenner & Starrin, 1988). 그러나 GHQ 단축형은 너무 간단하여 정신건강과 관련된 세부적 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GHQ 60문항을 사용하여 정신건강 및 그와 관련된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직자들의 정신건강을 요인별로 구분하고,

그와 관련된 변인으로 스트레스 대처양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여 이 변인들의 각 요인과 정신건강의 요인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방 법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실직자 175명이었다.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최종 사업장에서 퇴직한지 1년 이하이어야 하고, 둘째, 퇴직 사유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어야 하며(예: 정리해고,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셋째, 적극적인 구직 의사를 가지고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여야 하며, 넷째, 근로소득이 없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을 실업급여 수급자로 한정하였으며, 따라서 위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실직자들이었다.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월 평균 약 45만원에서 90만원 사이에 해당된다.

총 175명 중 남자가 105명, 여자는 70명이었고, 연령은 20대가 75명(42.9%), 30대 57명(32.6%), 40대 31명(17.7%), 50대 이상 12명(6.9%)이었다. 학력은 중졸 이하가 16명(9.2%)이었고, 고졸 65명(37.1%), 초대졸 35명(20%), 대졸 이상 56명(32%), 기타 3명(1.7%)이었다. 혼인 상태로는 미혼이 71명(40.8%)이었으며, 결혼 93명(53.4%), 기타 이혼 사별 등이 10명(5.8%)이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실직에 대하여 내리는 주관적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직이 주는 의미를 알아본 결과, 경제력의 상실이 39.6%로 나타

났다. 그 외에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나 사회적인 역할 상실, 그리고 무능력해지는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18.3%, 13.0%, 12.7%이었다.

조사도구

일반건강측정표(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60)

실직에 처한 실직자들의 정신건강을 살펴보기 위해 Goldberg(1978)가 제작한 일반건강측정표를 사용하였는데, 총 60문항으로서 자신의 정신, 신체적인 건강 등을 묻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질문지는 Likert 5점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자주 그렇다, 4점: 언제나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총 60문항의 반응들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채택하여 직교회전(Varimax)을 실시하였는데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수가 13개로 나타났다. 스크리(Scree)검사 결과에 따라 요인 수를 3개 요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개 요인의 설명량은 44.2%이었다.

세 요인 중 먼저 “사회적 역기능” 요인의 주요 내용은 “삶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지고 있다. 안절부절 못하거나 성질이 심술궂게 되어진다” 등이었다. “신체화 증상” 요인의 주요내용은 “머리가 멍하고 통증을 느낀다. 잠자고 난 후에도 개운한 감이 없다. 잠자다 깨고 난 후 다시 잠을 자기가 어렵다” 등이었고, “삶의 통제력 상실” 요인의 주요내용은 “어떤 일을 착수할 수 있다. 어떤 일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온정이

나 정감을 느낄 수 없다”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GHQ의 일관성 신뢰도는 .93이었고, “사회적 역기능” 요인의 신뢰도는 .92, “신체화 증상” 요인의 신뢰도는 .93, “삶의 통제력 상실” 요인의 신뢰도는 .87이었다.

스트레스 대처양식 척도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다양한 대처양식을 살펴 보기 위해 Lazarus와 Folkman(1984)이 개발하고 김정희(1987)가 번안한 것중 실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통해 전체문항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20문항을 스트레스 대처양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Likert 4점 척도(0점: 사용하지 않는다, 1점: 약간 사용한다, 2점: 어느 정도 사용한다, 3점: 아주 많이 사용한다)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처양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문항은 거꾸로 채점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총 20문항에 대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채택하여 직교회전(Varimax)을 실시하였는데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수가 4개로 나타났다. 4개 요인의 설명량은 54.99%이었다. 우선 첫 번째 요인은 “궁지를 가지고 곳곳이 버티어 나간다. 새로운 신념을 얻는다. 일어난 일이나 나의 느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 등이었다. 연구자는 이 요인을 ‘스스로 다독임’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으로 나타난 문항들의 주요내용은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상을 하거나 소망을 빈다. 그 일이 사라지거나 끝나버리기를 바란다” 등이었고, 이를 ‘소망적 사고’라고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의 주요내용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한다. 전문적인 도움을 청한다. 존경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한다” 등으로서 ‘구체적 대처’라고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모든 것을 잊

어버리려고 노력한다. 그 일을 무시해 버린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군다” 등이었고, 이를 ‘회피’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양식 질문지의 일관성 신뢰도는 .83이었고, “스스로 다독임” 요인의 신뢰도는 .82, “소망적 사고” 요인의 신뢰도는 .81, “구체적 대처” 요인의 신뢰도는 .74, “회피”요인의 신뢰도는 .53이었다.

자존감 척도

자존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제작한 총체적 자존감 척도를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것중 실직자를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통해 문항분석한 결과 전체문항 상관이 낮은 문항을 빼고 7개 문항만 사용하였다. 자존감 척도는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나 긍정적인 태도 등을 알아보고 있다. 질문지는 Likert 5점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자존감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측면들을 재고 있는 문항들은 거꾸로 채점하였다.

총 7문항에 대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채택하여 직교회전(Varimax)을 실시하였는데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수가 2개로 나타났다. 2개 요인의 설명량은 65.11%이었다. 첫 번째 요인의 주요내용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나는 내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등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효능감’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 대체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다” 등이었는데, ‘자신감’이라고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존감 척도의 일관성 신뢰도는 $\alpha = .87$ 이었고, “효능감” 요인의 신뢰도는 .84, “자신감” 요인의 신뢰도는 .61이었다.

사회적 지지 척도

실직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Michigan 대학교의 사회조사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서 제작한 JOB III Survey(Vinokur & Price, 1991)의 문항 중에서 노연희(1998)가 실직상황에 맞게 수정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타인을 배우자로 두고 응답하도록 하였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약간 그렇다, 5점: 매

우 그렇다)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문항은 거꾸로 채점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총 12문항에 대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채택하여 직교회전(Varimax)을 실시하였는데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수가 2개로 나타났다. 2개 요인의 설명량은 66.94%이었다. 첫 번째 요인의 주요내용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 내가 하는 말을 경청해 준다. 내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 공감해 준다” 등으로서, 이를 ‘정서적 지지’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의 주요내용은 “나 대신 구인처나 창업관련 기관에 전화도 해주고

표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각 측정치의 평균(표준편차) 및 그 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측정치	GHQ (범위: 0~4)	스트레스 대처 (범위: 0~3)	자존감 (범위: 0~4)	사회적 지지 (범위: 1~5)
성별	남자		1.11(.48)	1.44(.48)	2.67(.64)	3.44(.86)
	여자		1.11(.45)	1.43(.43)	2.56(.62)	3.18(.87)
			-0.1	.13	1.13	1.32
연령	20대		1.01(.43)	1.54(.39)	2.69(.60)	3.42(.79)
	30대		1.17(.48)	1.37(.51)	2.68(.74)	3.39(.82)
	40대		1.29(.55)	1.38(.44)	2.45(.51)	3.45(.99)
	50대이상		.98(.38)	1.19(.57)	2.38(.50)	2.99(.86)
			2.16	2.85*	1.7	.80
학력	중졸		1.56(.45)	1.33(.53)	2.43(.70)	3.00(.69)
	고졸		1.42(.53)	1.38(.53)	2.50(.59)	3.23(.91)
	전문대졸		1.36(.50)	1.59(.43)	2.79(.71)	3.75(.69)
	대졸이상		1.34(.59)	1.53(.46)	2.69(.57)	3.45(.87)
			.45	1.86	2.26	1.95
혼인상태	미혼		1.35(.55)	1.51(.48)	2.66(.59)	2.70(.56)
	결혼		1.37(.52)	1.45(.50)	2.62(.66)	3.39(.83)
	기타		1.74(.60)	1.33(.52)	2.35(.68)	3.00(1.42)
			1.67	.64	1.04	1.07

*p < .05

같이 다녀준다. 나를 위해 구직, 창업관련 정보들을 대신 수집해 준다.” 등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도구적 지지’라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척도의 일관성 신뢰도는 .90이었고, “정서적 지지” 요인의 신뢰도는 .91, “도구적 지지” 요인의 신뢰도는 .81이었다.

결 과

각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

표 1에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각 측정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 그 차이를 보여주는 t 값과 F 비가 제시되어 있다. 연령에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양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이 적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양한 대처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108) = 2.85, p < .05$. 연령 외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측정치의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GHQ와 스트레스 대처양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의 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표 2에는 각 연구변인들의 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와 그 차이를 보여주는 F 비가 제시되어 있다. 표 2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실직자들은 정신건강 중 “사회적 역기능” 보다도 “신체화 증상”이나 “삶의 통제력 상실” 면에서 더 큰 곤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2, 465) = 113.00, p < .001$. 어느 요인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Tukey 검증)을 하였다. “사회적 역기능”과 “신체화 증상”간에 $p < .01$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고, “사회적 역기능”과 “삶의 통제력 상실” 그

리고 “신체화 증상”과 “삶의 통제력 상실”간에 각각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처”나 “회피”를 하기보다는 스스로 다독이거나 소망적 사고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았다, $F(3, 672) = 22.81, p < .001$. 실직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구체적인 도구적 지지보다는 정서적인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F(1, 335) = 57.451, p < .001$.

GHQ와 스트레스 대처양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의 관계

GHQ의 각 요인들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요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GHQ와 스트레스 대처양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존감; $\gamma = -.49, p < .01$, 사회적 지지; $\gamma = -.33, p < .01$). GHQ의 “사회적 역기능”은 스트레스 대처 양식 중 “스스로 다독임”, “소망적 사고”, “회피”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스트레스 상황에 스스로 다독이는 방식으로 대처할수록 “사회적 역기능”은 적게 경험하였으며($\gamma = -.20, p < .05$), “소망적 사고”($\gamma = .18, p < .05$) 나 “회피”($\gamma = .16, p < .05$)로 대처할수록 “사회적 역기능”이 크게 나타났다. “사회적 역기능”과 자존감,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 사이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효능감을 갖고 있을수록($\gamma = -.39, p < .01$), 자신감이 많을수록($\gamma = -.49, p < .05$),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많을수록($\gamma = -.33, p < .05$), 도구적 지지가 많을수록($\gamma = -.28, p < .05$) “사회적 역기능”은 적게 나타났다.

GHQ의 두 번째 요인인 “신체화 증상”은 스트

표 2. GHQ, 스트레스 대처양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의 각 요인별 평균과 그 차이

연구변인	요 인	평균(표준편차)	범 위	F(자유도)
GHQ	사회적 역기능	.98(.66)	0~4	113.00*** (2, 465)
	신체화 증상	1.23(.77)		
	삶의 통제력 상실	2.12(.66)		
	전체	1.39(.54)		
스트레스 대처	스스로 다독임	1.64(.61)	0~3	22.81*** (3, 672)
	소망적 사고	1.63(.71)		
	구체적 대처	1.30(.63)		
	회피	1.18(.61)		
	전체	1.47(.50)		
자존감	효능감	2.62(.70)	0~4	.00 (1, 339)
	자신감	2.62(.81)		
	전체	2.63(.63)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3.94(.84)	1~5	57.45*** (1, 335)
	도구적 지지	3.18(.99)		
	전체	3.57(.87)		

*** $p < .001$

레스 대처양식 중 “소망적 사고”, “구체적 대처”, “회피”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소망적 사고”로 대처할수록 신체화 증상은 낮게 보고한 반면($\gamma = -.29, p < .01$), 스트레스에 구체적으로 대처하거나 회피할수록 신체화 증상이 많았다(구체적 대처 ; $\gamma = .18, p < .05$, 회피 ; $\gamma = .28, p < .01$). 자존감 요인 중에서는 “자신감”, 사회적 지지 요인 중에서는 “정서적 지지”만이 “신체화 증상”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감이 많을수록($\gamma = -.30, p < .01$),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화 증상을 낮게 보고했다($\gamma = -.25, p < .01$). “삶의 통제력 상실”은 “스스로 다독임”, “소망적

사고”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스스로 다독인다거나 소망적인 사고로 대처할수록 “삶의 통제력 상실”은 낮았다(스스로 다독임 ; $\gamma = -.32, p < .01$, 소망적 사고 ; $\gamma = -.19, p < .05$). 자존감의 두 하위요인은 모두 “삶의 통제력 상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효능감을 지니고 있을수록($\gamma = -.45, p < .01$), 그리고 자신감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통제력 상실은 낮았다($\gamma = -.40, p < .01$). 사회적 지지 중에서는 “정서적 지지”만이 “삶의 통제력 상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통제력 상실도 낮게 나타났다($\gamma = -.24, p < .01$).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중에서는 학력만이

표 3. GHQ의 각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과의 관계

측정치	GHQ					스트레스 대처양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		
	연령	학력	사회적 역기능	신체화 증상	삶의 통제력 상실	스스로 다독임	소망적 사고	구체적 대처	회피	효능감	자신감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연령	-												
학력	.00	-											
GHQ	사회적 역기능	.00	-.03	-									
	신체화 증상	.08	-.01	.66**	-								
	삶의 통제력상실	.16	.17*	.27**	.16	-							
스트레스 대처양식	스스로 다독임	-.14	.18*	-.20*	-.01	-.32**	-						
	소망적 사고	-.17*	.03	.18*	-.29**	-.19*	.41**	-					
	구체적 대처	-.18*	.13	.06	.18*	-.11	.63**	.42**	-				
	회피	-.17*	.10	.16*	.28**	-.15	.30**	.38**	.35**	-			
자존감	효능감	-.14	.14	-.39**	-.06	-.45**	.56**	.26**	.29**	.27**	-		
	자신감	-.12	.12	-.49**	-.30**	-.40**	.21**	-.03	-.05	-.02	.46**	-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25**	.15	-.33**	-.25**	-.24**	.41**	.11	.36**	.43**	.41**	.29**	-
	도구적 지지	-.09	.09	-.28**	-.01	-.13	.28**	.05	.30**	.22**	.26**	-.01	.66**

* $p < .05$ ** $p < .01$

“삶의 통제력 상실”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gamma = .17, p < .05$),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통제력 상실을 높게 보고하였다.

GHQ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양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의 설명력

표 4에는 GHQ 각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양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의 각 요인들이 갖는 설명력이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역기능” 요인에 대해서는 자존감 중 “자신감” 요인의 설명력이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체화 증상”에 대해서는 “자신감”과 “소망적 사고”, “도구적 지지”의 설명력이 각각 9.2%, 10.2%, 5.6%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였다. “삶의 통제력 상실”에 대해서는 자존감의 두 요인인 “효능감”과 “자신감”의 설명력이 각각 26.1%와 3%로

표 4. GHQ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양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의 각 요인별 설명력

GHQ요인	설명요인	β	R ²	Adj.R ²	ΔR^2	F
사회적 역기능	자신감	-.50***	.28	.27	.28	28.99*** (3, 64)
	도구적 지지	-.26***	.33	.32	.06	
	소망적 사고	.26***	.40	.38	.07	
신체화 증상	자신감	-.25***	.10	.09	.10	14.82*** (4, 69)
	소망적 사고	.29***	.20	.19	.10	
	도구적 지지	-.28***	.26	.24	.06	
	회피	.23**	.30	.28	.05	
삶의 통제력 상실	효능감	-.40***	.26	.26	.26	27.34*** (2, 69)
	자신감	-.21*	.29	.28	.03	

* $p < .05$, ** $p < .01$, *** $p < .001$

나타났으나, 그 외 스트레스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지의 모든 요인들의 “삶의 통제력 상실”에 대한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실직 기간 1년 미만의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들 중 정신건강을 요인별로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변인으로 스트레스 대처양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를 선정, 그 하위 요인들과 실직자의 정신건강의 요인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직자들은 정신건강 중에서도 “사회적 역기능”이나 “신체화 증상”에 비해 “삶의 통제력 상실” 면에서 더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삶의 통제력 상실은 자신감의 결여, 대인관계의 어려움, 절망감 등을 나타낸다. 김재갑 등(1998)의 연구에서 실직 초기에는 취업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해 만남의 빈도가 증가하지만 경제적 지출이 따르는 만남이 감소되며 대인관계

에서 위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직이라는 사건이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Warr(1983)는 실직경험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앞으로의 자신의 생활을 계획하는데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통제가능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졌다. 즉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더라도 자신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Stern, McCants & Pettine, 1982). 비자발적인 실직 경험은 개인의 통제감인 자기효능감을 크게 훼손시키는 경험이다. Fryer와 McKenna(1987)는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직원이 일정기간 휴직에 들어간 집단과 그러한 절차없이 해고된 집단을 비교하였다. 두 집단이 의견상으로는 동일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집단이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정신건강 수준을 유지하였다. 실직자들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기대를 갖는 절망감을 경험한다. 실

직자는 심한 절망감을 갖게 되어 절망감이 우울과 귀인양상을 증대하는 변인으로 나타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실직자들은 “구체적 대처”나 “회피”를 하기보다는 스스로 다독이거나 소망적 사고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실직에 대해 구체적 선택을 하는 능동적 행위자(Caplan 등, 1987)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olkman(1986)은 위협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을 통제 또는 변경하기 위해 직접적 행동을 취해 대처하는 것을 문제 초점적 대처라고 하였다. 삶의 통제력 상실에서 보다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실직자들은 문제 초점적 대처를 하기 어렵다. 오히려 실직이라는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 유발된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둔 광범위한 사고와 행동을 하는 정서 초점적 대처를 하게 된다. 실직과 관련된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켜 심리적 안녕감을 얻으려는 대처행동이다.

실직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구체적인 도구적 지지보다는 정서적인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얻은 정서적 지지는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타격을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essler, Price & Wortman, 1985). 특히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는 실직한 남편의 정서적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실직자의 정신건강 요인 중 “사회적 역기능”은 스트레스 대처 양식 중 “스스로 다독임”, “소망적 사고”, “회피”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스트레스 상황에 스스로 다독이는 방식으로 대처할수록 “사회적 역기능”은 적게 경험하였으며, “소망적 사고”나 “회피”로 대처할수록 “사회적 역기능”을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역기능”과 자존감,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 사이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효능감을 갖고, 자신감이 많을수록, 중요한 타인으

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가 많을수록 “사회적 역기능”을 적게 경험했다.

실직자의 정신건강 중 두 번째 요인인 “신체화 증상”은 스트레스 대처양식 중 “소망적 사고”, “구체적 대처”, “회피”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소망적 사고”로 대처할수록 신체화 증상은 낮게 보고한 반면, 스트레스에 구체적으로 대처하거나 회피할수록 신체화 증상이 많았다. 자존감 요인 중에서는 “자신감”, 사회적 지지 요인 중에서는 “정서적 지지”만이 “신체화 증상”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감이 많을수록,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화 증상을 낮게 보고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직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실직자의 신체화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노연희(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삶의 통제력 상실” 요인은 “스스로 다독임”, “소망적 사고”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스스로 다독인다거나 소망적인 사고로 대처할수록 “삶의 통제력 상실”을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의 두 하위요인은 모두 “삶의 통제력 상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효능감을 지니고 있을수록, 그리고 자신감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통제력 상실 역시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중에서는 “정서적 지지”만이 “삶의 통제력 상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통제력 상실도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중에서는 학력만이 “삶의 통제력 상실”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통제력 상실을 낮게 보고하였다.

한편, 실직자의 정신건강 각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양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의 각 요인들의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역기능” 요인에

대해서는 자존감 중 “자신감” 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체적 무력감”에 대해서는 “자신감”과 “소망적 사고”, “도구적 지지”의 설명력이 다소 낮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였다. “삶의 통제력 상실”에 대해서는 자존감의 두 요인인 “효능감”과 “자신감”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 스트레스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지의 모든 요인들의 “삶의 통제력 상실”에 대한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직자들의 정신건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실직자들의 정신건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세부적으로 이해할 때 보다 면밀해지고, 특히 실직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약화된 실직자들의 정신건강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실직자들은 “사회적 역기능”, “신체적 증상”, “삶의 통제력 상실” 면에서 곤란을 경험하는 강도가 다르며, 이 각 영역의 곤란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 역시 각기 다르다. 실직자가 느끼는 “사회적 역기능”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며, 실직자들이 특히 높게 지각하고 있는 “삶의 통제력 상실”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대처양식이나 사회적 지지를 통한 접근보다도 자존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직자들의 정신건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보다 효과적인 심리적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는 있으나, 실직 기간에 1년 이내인 실업급여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서 벗어나고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른 악화되는 실직자의 정신건강 측면과 그 설명변인들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직

의 경험과 그 기간에 따른 정신건강 및 관련 변인들의 연구를 통하여 장/단기 실직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 및 그에 적절한 심리적 개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재갑, 김은미, 이선이, 최우영 (1998). 불황기의 실업스트레스 변화과정: 사례연구, 경제불황의 심리적 반응.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221-252.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청구논문.
- 노연희 (1998). 실직자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화 반응 및 대처행동.
- 이민규 (2000). 실직자의 정신건강과 강인성 및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 초록* 377-290.
- 오수성, 이광섭, 최진수, 이정애, 손석준 (1995). 일반건강측정표를 이용한 일부지역 주민의 스트레스 수준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지*, 28(1), 123-139.
- 황성훈, 유희정, 한오수 (1998). IMF에 관련된 경제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161-172.
- Brenner, S. O., & Starrin, B. (1988). Unemployment and Health in Sweden: Public Issues and Private Troubl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 125-140.
- Caplan, R., Vinokur, A. D., Price, R. H., & van Ryn,

- M. (1989). Job seeking, reemployment and mental health: A randomized field experiment in coping with job lo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9, 759-769.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6, 539-550.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Feather, N. T., & Barber, J. G. (1983). Depressive reactions and unemploy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185-195.
- Finlay-Jones, R. A., & Eckhardt, B. (1981). Psychiatric disorder among the young unemployed.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15, 265-270.
- Folkman, S., Lazarus, R. 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1986). The dynamics of stressful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92-1003.
- Goldberg, D. P. (1978). *Manual for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Windsor: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 Hawton, K., & Rose, N. (1986). Unemployment and attempted suicide among men in Oxford. *Health Trends*, 18, 29-32.
- Hepworth, S. (1980). Moderating factors of the psychological impact of unemploy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3, 139-145.
- Jex, S. M., Cvetanovski, J., & Allen, S. J. (1994).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impact of unemployment.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9, 69-80.
- Kessler, R. C., Price, R. H., & Wortman, C. B. (1985).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 531-572.
- Kessler, R. C., Turner, J. B., & House, J. S. (1988). Effects of unemployment on health in a community survey: main modifying, and mediating effect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69-85.
- Latack, J., Kinicki, A. J., & Prussia, G. E. (1995). An integrative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job los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311-342.
- Lazarus, R.,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ana, C. R., Feldman, D. C., & Tan, G. Y. (1998). Predictors of coping behavior after a layoff.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9, 85-97.
- Lynd-Stevenson, R. M. (1996). A test of the 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 in unemployed young adul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117-132.
- Mallinckrodt, B., & Bennett, J. (1992). Social support and the impact of job loss in dislocated blue-collar worke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482-489.
- Platt, S., & Kreitman, N. (1990). Long-term trends in parasuicide and unemployment in Edinburgh, 1968-87.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5, 56-6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wley, K. M., & Feather, N. T. (1987). The impact of unemployment in relation to age and length of unemploy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0, 323-332.
- Schaefer, C., Coyne, J. C., & Lazarus, R. S. (1981). The health-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381-406.

- Shamir, B. (1986). Self-esteem and the psychological impact of unemploy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 61-72.
- Shams, M. (1993).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unemployed British Asian me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1, 175-186.
- Stem, G. S., McCants, T. R., & Pettine, P. W. (1982). Stress and illness: Controllable and uncontrollable life event's relative contribu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1), 140-145.
- Vinokur, A., & Caplan, R. D. (1987).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Determinants of job-seeking behavior and well-being among the unemployed.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9, 521-542.
- Vinokur, A., & Price, R. (1991). *Jobs III Survey*. ISR: Michigan.
- Vinokur, A. D., & Van Ryn, M. (1993). Social support and undermining in close relationships: Their independent effects on the mental health of unemployed pers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350-359.
- Warr, P. B. (1983). Work, jobs, and unemployment.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36, 305-311.
- Warr, P. B. (1984). Reported behavior changes after job loss.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23, 271-275.

A Study on the Laid-off Workers' Mental Health After the IMF Crisis in Korea - Focused on Their Stress Coping Styl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

Soo-Sung Oh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laid-off workers' mental health and relative factors. 175 laid-off workers' who had been laid-off less than one year and received unemployment compensation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laid-off workers' mental health was classified into several factors by general health measure. Stress coping styl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were selected as their relative variable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each factor of these variables and that of mental health were investigated. The unemployed had more difficulty with loss of control over their life than social dysfunction or somatization. And under the stress, they tended to cope by comforting themselves or having wishful thought than adopting specific coping style or avoiding. In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was higher than instrumental support. These results showed that we need to approach more specifically rather than broadly to understand their mental health.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etailing the weak point of the unemployed's mental health can be more effective in showing the type of specific psychological intervention needed.

Keywords : mental health, stress coping, self-esteem, social support, layoff, laid-off workers

1 차원고접수 : 2001. 9. 8.

수정원고접수 : 2001. 11. 30.

최종게재결정 : 2001. 12. 10.